

투데이 칼럼

신뢰세정 속 국민의 행복이 증진되는 성실 납세문화를 이룩자

유독 세금과 관련하여 부정적 위앙스의 말들이 넘쳐난다.

피 같은 돈을 갖다 바친다는 혈세(血稅), 가혹한 세금에 대한 민중의 한숨과 원망이 묻어나는 말들인 가렴주구, 황구절정, 백골징포, 백지징세, 인징, 죽징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부정적 납세인식은 조세저항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실제로 지방세 체납자를 살펴보면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져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영세·생계형 체납자부터 납세능력이 충분함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납부를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고액·상습 체납자까지 다양하다.

체납액 징수를 제고를 위해 일정정리 기간을 정하고 1대1동려로 체납자의 거소지를 파악하여 방문하거나 전화 및 SMS 메시지 전송, 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하고 있지만 징수여건은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뢰세정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 및 맞춤형 징수활동이다.

정확하고 다양한 과세자료에 기초한 지방세 과세는 신뢰세정의 기본이다.

조세회피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분리하여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각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행정 제재를 유보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길재

장계면장

다음으로 성실납세자 우대 제도의 활성화이다.

현재 장수군의 경우 운영되고 있는 성실납세자 우대 지원으로는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성실 납세자 등에 대한 성실납세자증 교부, 예산의 범위에서 군에서 발행한 장수사랑상품권 지급, 장수군 금고를 담보하는 금융기관과 매년 협의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군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1년간 면제 또는 유예, 군 홈페이지 등에 성실납세자 등 명단공개(동의자에 한함)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납세 인식에 대한 교육회 마련이다.

소득재분배,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제의 안정 성장이란 조세의 순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및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해 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어릴 적부터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한다.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의무인 성실 납세는 이웃 간의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과 공존의 현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윈·윈(win-win)을 실천하는 길이며 성실 납세로 인해 보람과 자긍심속에 사회적 존경을 받고 행복한 일상 속에 내고장 발전을 물론 국력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중요성을 널리 전파해 나가는 것이다.

위와 같은 신뢰세정을 토대로 납부된 세금이 주민편익과 복리증진 등 물론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에 충당되어 제대로 쓰이고 그 혜택을 개개인이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사회에 만연한다면 이아말로 긍정적인 세정 실현과 성숙한 성실 납세 문화 조성의 접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사설

신규 발굴사업들에 힘 실어야

지역발전을 약속한 신규사업들의 행방이 어찌 이상하다. 사업 발굴과 함께 미래 청사진 그리기가 요란했는데 그뿐이라면 곤란하다. 그래서 지난날의 보도가 다시 생각나는 요즘이다. 전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이 지역발전을 목표로 사업들을 발굴했던 거 말이다. 그런데 지금의 이 시점에서 그 발굴에 대해서 짚어볼 바가 있다. 사업 발굴이라는 게 그 자체로 끝난다면 미래를 기약하기가 어렵다. 사업을 발굴했으면 추진을 해서 지역의 발전 성과를 내야만 한다.

전북도의 사업 발굴을 책임지는 게 결코 아니다. 사업들을 발굴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도모할 수 없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문제는 그 사업들이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있다. 무슨 말이나면 관계자들의 추진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추진되도록 힘을 실어서 밀어붙여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것이다.

전북도가 여러 사업들을 발굴한 것에 의미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업발굴은 지역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자체에만 의미부여를 해서 안 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각각의 사업 구상이 실제로 추진돼야만 한다. 그러려면 먼저 사업의 당위성을 획득하여야 한다. 지역 발전 사업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예산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각각의 사업들을 본궤도에 올려놓으려면 전북도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보다 치밀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략이 세워졌으면 성취를 위해 힘찬 행보를 보여야 한다. 매년 예산 증액이 소액에 그쳐 기대부인데 이번에는 가일층 노력해 7조원 시대를 열어젖힌다.

도민들이 바라는 바는 항상 여 일하다. 지역의 발전이 도민의 열원이라는 말이다. 지역 발전 사업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기 바란다. 젊은이들은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고용도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북도의 사업 발굴은 청사진 그리기 차원에서 멈추면 안 된다. 그 어떤 사업이 발굴은 목적이 아니다. 전북도 관계자들은 국가 지원이든 민간인 투자든 돈을 끌어 모아서 힘차게 사업들을 벌여나가야겠다.

젊은이 40%가 전북을 영영 떠나고 싶다는데

도내 젊은이 40%가 기회만 주어진다면 전북을 영영 떠나고 싶다고 토로하는 직류이다. 청년 일자리가 중요한 관심사 아니냐는 물음은 그래서 여전히 유효하다. 젊은이들의 불안 가뭄한 정서를 두고서 전북도는 매우 착실한 것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안하고 있는 것도 이만큼 젊은이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속 말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에 전북도가 지역의 유력한 기관들과 공동으로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포럼을 가졌었는데 그 실효가 어땠는지 궁금하다.

전북도는 청년 인구의 감소 현상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만 할 게 아니다. 수년 전부터 젊은이들 사이에 시작된 유행어들이 수그러들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태백이니,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하는 유행어는 이제 옛말이다. 헬조선이라는 말에 이어 흠수저라는 말이 자기 조양처럼 자타를 잡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남강현 세태와 관련해 그 수된 해안이 중앙 정부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지방정부인 전북도 또한 책임

이 아주 없지는 않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그 인자터리는 게 너무 약소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관청은 일자리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 일자리 마련의 핵심은 중소기업과 귀촌 기업도 나누어야 한다. 나는 진정성을 가지고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는 당부이다. 일자리 만들기가 숫자 채우기 같은 것으로 변질돼선 곤란하다. 그것은 올바른 해답이 아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 취업률이 저조한 이유는 뚜렷하다. 젊은이들 대부분은 연봉도 괜찮고 고용도 안정된 직장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로 숫자 늘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감으로 납득되는 것이라야 한다.

전북 지역은 일자리 창출이 여전히 지조하다. 그리고 고용 분위기도 또한 따뜻하지 않다.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언제 쫓겨나지 몰라 불안해 하고 있다. 그런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본질이 아닐 수 없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고 말하려면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를 기간제 일자리로 활성화해서는 안 된다.

독자재언

여름휴가 빈집사전신고제 신청하고 가자

날씨가 더워지면서 계속으로 바다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장기간 집을 비우는 시기를 틈타 빈집탈이 범죄가 빈번히 발생한다. 휴가를 떠날 때는 특히 자가 방법에 주의할 기울여 빈집탈이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예방책을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

먼저 고층에 살더라도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 빈집탈이범들은 들끓기 때문에 잠긴 창을 깨기보다는 열린 곳을 찾아 침입하는 경우가 많다. 휴가를 가기 전 배란다나 창문, 부엌 환기구 등 문단속만으로도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빈집이라는 것을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 집을 비울 때는 유유나 신문이 문 앞에 쌓이지 않도록 미리 중지시키는 것이 좋다. 또 인기척이 날 수 있게 예약기능을 활용하여 TV나 실내용이 커지게 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경찰에서는 휴가철 주민들을 위해

몇가지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는 금품 보관 서비스인데, 고가의 귀중품은 집이 아닌 경찰기관에 맡기면 안심하고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이 아니더라도 현금, 계약서, 각종 귀금속 등은 은행의 대여금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또 다른 서비스로 경찰관서에서는 '빈집 사전신고제'를 운영중이다.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로 신고하면 경찰관이 수시로 집주변을 순찰하여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게 도움을 준다. 농촌의 경우 마을 전체가 여행을 떠날 때 '마을예약 순찰'에 맡기면 된다. 여행 중 순찰 현상이 궁금하면 신고를 접수한 지구대를 통해 순찰 이상 유무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다.

이처럼 주민에게 다가가는 방법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족, 연인과 함께 떠나는 휴가철에 철저한 빈집탈이 예방으로 즐거운 여행이 되었으면 한다.

이동민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트럼프 “北 완전한 비핵화 진행 중”



도널드 트럼프 대 대통령 이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조속히 시작하는데 합의했으며 이 과정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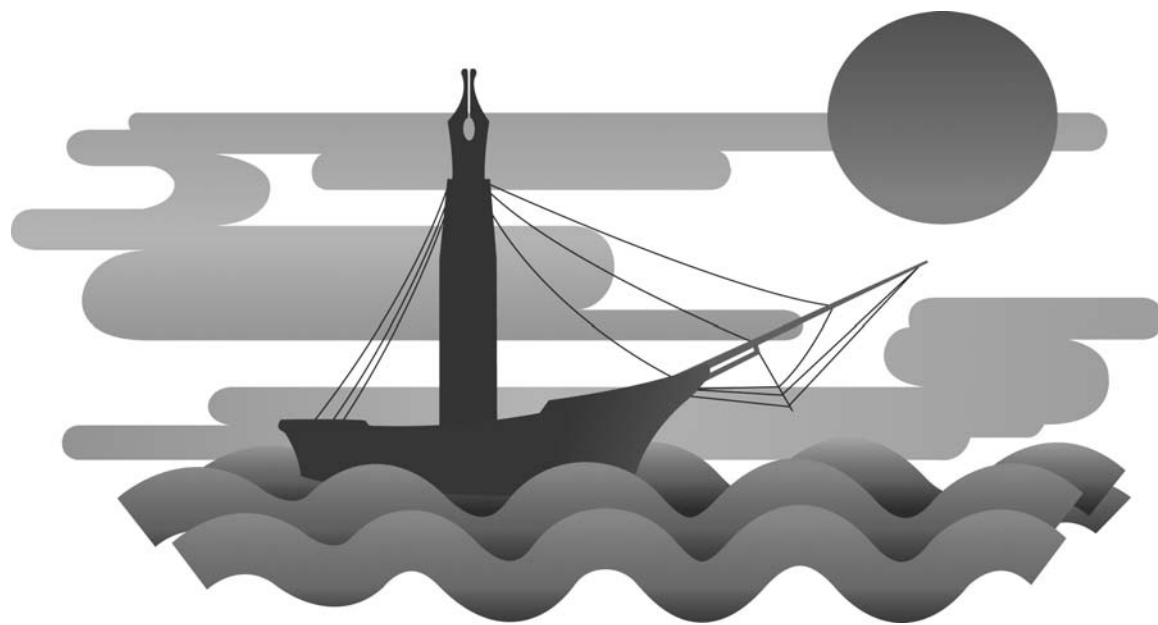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